

규제개혁 시리즈 16-02  
2016. 6

##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 목 차

## <요 약>

I. 조사개요 .....	1
II. 규제개혁 평가 .....	2
1.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	2
2. 부문별 체감도 .....	4
3. 분야별 체감도 .....	5
III. 규제에 의한 투자 및 신산업 진출 애로여부 .....	15
1. 투자계획 무산·지체 경험 .....	15
2. 신산업 진출 애로 경험 .....	15
3. 신산업 진출 애로 이유 .....	16
IV. 향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개선과제 .....	17
1.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규제개혁 정책 .....	17
2. 현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 전망 .....	17
3.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 .....	19
<부 록> .....	20
<참고문헌> .....	23

- 이 자료는 본회 규제개혁팀 문상은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189      FAX : 02-6234-5283      E-mail : moonsang@fk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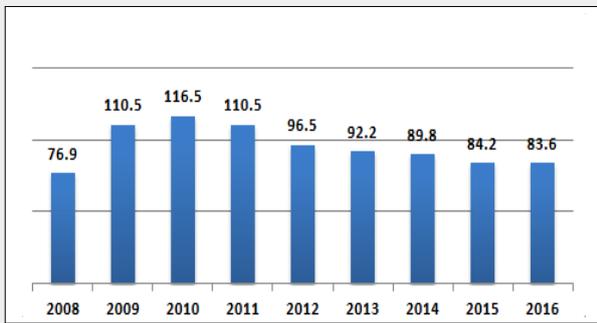


#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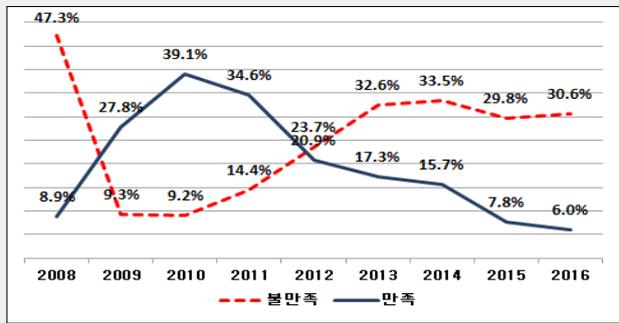
## □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작년(84.2)과 거의 같은 수준

- [부문별] 규제품질 제고(90.5), 미등록 규제 정비(86.5), 유사 행정규제 정비(86.2),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79.6),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74.8), 신속한 후속조치(73.6) 順
- [분야별] 관광·의료(94.3), 물류·유통(91.2), 기타 서비스(89.6), 환경·에너지(89.1), 금융(88.1), 입지, 건설·건축(82.6), 방송·정보통신(80.2), 대기업(75.0), 노동 (72.3) 順

<규제개혁 체감도\* 추이>



<규제개혁 만족, 불만족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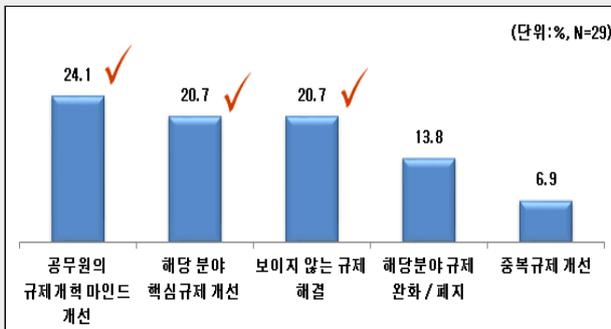


\*`14까지 분회 회원사를 대상, `15 이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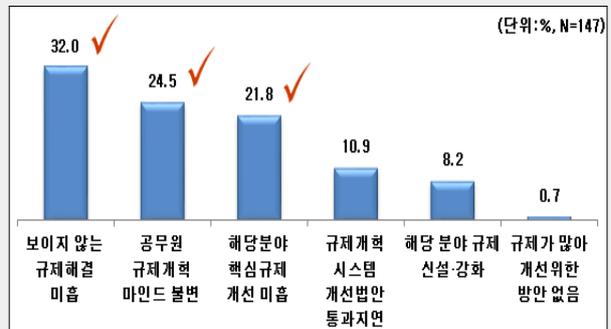
## □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보이지 않는 규제의 개선 여부가 기업의 규제 개혁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만족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24.1%), 해당분야 핵심규제의 개선(20.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20.7%) 順
-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32.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8%) 順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이유>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



□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 무산·지체 경험 이 있었다는 응답은 9.4%, 신산업 진출에 애로가 있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남

-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무산·지체경험은 대기업(9.0%)보다 중소기업(9.8%)이 더 많으며, 업종별로는 일반 서비스(15.6%), 금융(15.4%) 順
- 신산업 진출 애로는 중소기업(4.8%)보다 대기업(14.1%)이 더 많으며, 업종별로는 금융권(30.8%)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됨
- 신산업 진출 애로 이유는 시설 규제(31.8%), 기술 규제(30.3%), 제도 미비(19.7%) 順

□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 규제개혁 정책은 한시적 규제완화(30.8%)

-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규제개혁 정책은 한시적 규제 완화(30.8%),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네거티브 방식 신산업 규제완화(13.9%)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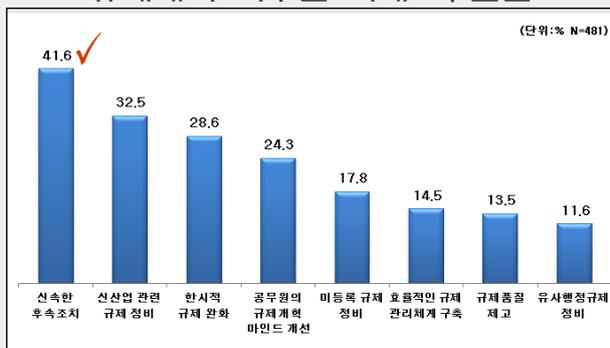
□ 현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성과전망은 부정적(43.3%)이 긍정적(11.2%)의 4배

- 매우 부정적(15.1%), 부정적(28.2%), 보통(44.1%), 긍정적(10.2%), 매우 긍정적(1.0%)
- 규제개혁 성과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 변화가 없어서 (28.1%),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13.6%) 順

□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는 신속한 후속조치(부문별)와 노동·대기업 규제(분야별)

- [부문별-복수응답]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 신산업 진출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32.5%), 한시적 규제 완화(28.6%),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24.3%), 미등록 규제 정비(17.8%), 효율적인 규제 관리체계 구축(14.5%), 규제종류 재고(13.5%), 유사병행규제 정비(11.6%) 順
- [분야별-복수응답] 노동(38%), 대기업(28.2%), 환경 및 에너지(25.3%), 금융(24.5%), 건설·건축(21.8%), 관광·의료(14.7%), 방송·통신(10.6%), 물류/유통(8.6%), 기타서비스(7.5%) 順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부문별>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분야별>



# I 조사개요

□ [조사목적]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발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및 규제개혁 방향 제시

-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부문별·분야별로 조사
- 기업의 규제개혁 기대감 및 최우선 개선과제를 조사하여 개혁방향을 제시

□ [조사대상] 510개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각 255개사)

<업종별 응답기업 수>

업종	제조	유통·운송	건설	일반 서비스	금융	섬유·화학/에너지	IT	철강·금속
응답(수)	284	66	65	64	13	11	4	3

□ [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

□ [조사방법]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 [조사기간] `16.4.15(금) ~ `16.4.26(화)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4.34%p

□ [조사내용]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 및 향후 개선과제

-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부문별·분야별 만족도
- 지난 1년간 규제에 의한 투자계획 무산·지체 경험
- 규제에 의한 신산업 진출 애로 경험 및 이유
-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 규제개혁 정책
- 현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망
- 향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및 개혁 추진 방향
  - 부문별, 분야별 최우선 추진 과제

## Ⅱ 규제개혁 평가

### 1.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 · 규제개혁 체감도

- 규제개혁 체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불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초과 시 만족, 100 미만은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

$$\text{체감도}^* = \left( \frac{\text{매우 만족비율} \times 100 + \text{약간 만족비율} \times 50}{100} \right) - \left( \frac{\text{매우불만족비율} \times 100 + \text{약간불만족비율} \times 50}{100} \right) + 100$$

\*체감도 산출 시 모름·무응답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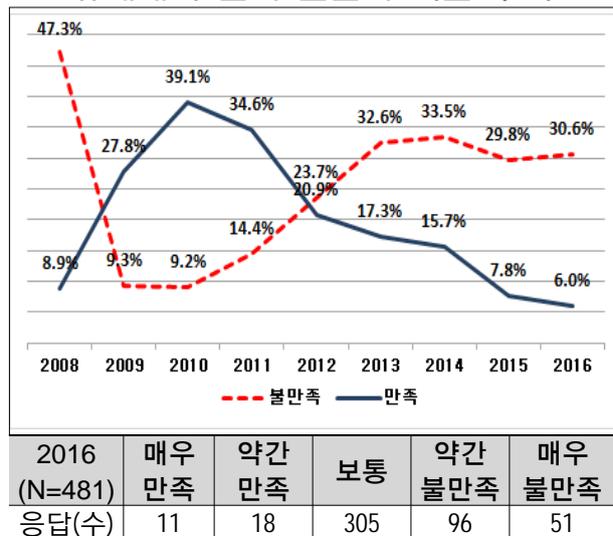
#### □ 2016년에 조사된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

- `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작년(84.2)과 거의 같은 수준
  - 매우 만족(2.3%), 약간 만족(3.7%), 보통(63.4%), 약간 불만족(20.0%), 매우 불만족(10.6%)
- `10년 이후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 대비 2.4~6.0p씩 매년 하락해왔으나 `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0.6p 낮아져 하락폭 둔화
  - 전년 대비 불만족 소폭 증가(0.8%p), 만족 소폭 감소(1.8%p), 보통 소폭 증가(1%p)

<규제개혁 체감도 추이>



<규제개혁 만족·불만족 비율 추이>



\* `14까지 본회 회원사 대상, `15 이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조사

□ 대기업(규모별)과 섬유·화학/에너지기업(업종별)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89.4)이 중소기업(77.8)보다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업종별 체감도는 섬유·화학/에너지(100.0), 제조(87.1), 일반서비스(86.3), 금융(79.2), 유통/운송(75.0), 건설(73.8), 철강·금속(66.7), IT(66.7) 順

< '16년도 업종별 응답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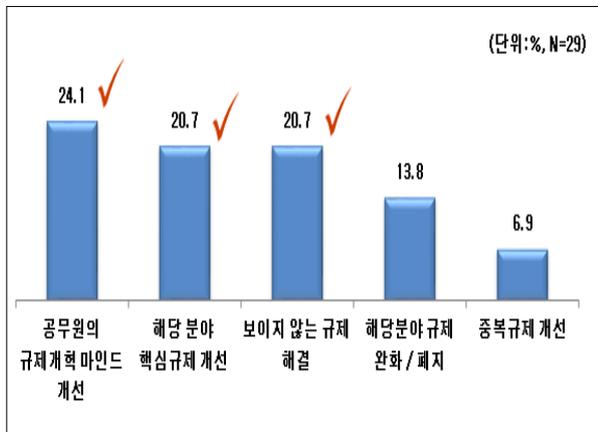
(단위 : 응답 수, %)

업종	섬유·화학/에너지	제조	일반서비스	금융	유통/운송	건설	철강·금속	IT
전체	11(100.0)	267(100.0)	62(100.0)	12(100.0)	62(100.0)	61(100.0)	3(100.0)	3(100.0)
매우 만족	1(9.1)	5(1.9)	3(4.8)	0(0.0)	1(1.6)	1(1.6)	0(0.0)	0(0.0)
약간 만족	1(9.1)	12(4.5)	3(4.8)	0(0.0)	0(0.0)	2(3.3)	0(0.0)	0(0.0)
보통	7(63.6)	179(67.0)	35(56.5)	7(58.3)	40(64.5)	34(55.7)	1(33.3)	2(66.7)
약간 불만족	1(9.1)	51(19.1)	16(25.8)	5(41.7)	9(14.5)	12(19.7)	2(66.7)	0(0.0)
매우 불만족	1(9.1)	20(7.5)	5(8.1)	0(0.0)	12(19.4)	12(19.7)	0(0.0)	1(33.3)
체감도	100.0	87.1	86.3	79.2	75.0	73.8	66.7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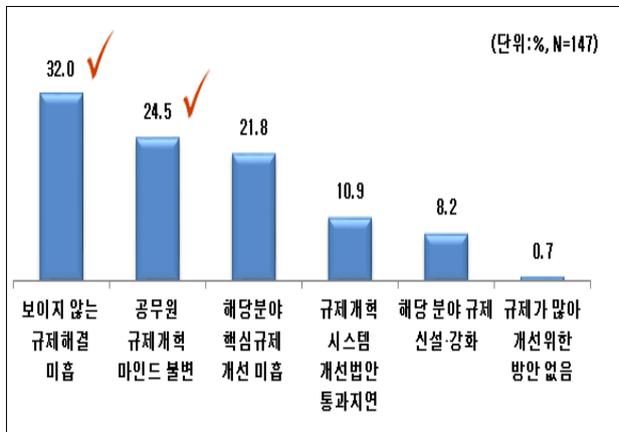
□ 보이지 않는 규제 및 공무원 마인드 개선 여부가 규제개혁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

- 규제개혁 만족 응답자의 44.8%와 불만족 응답자의 56.5%가 보이지 않는 규제 및 공무원 마인드 개선을 이유로 들어 이의 해결이 체감도의 관건임을 시사
  -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마인드 개선(24.1%), 핵심규제의 개선(20.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20.7%), 해당분야 규제 완화/폐지(13.8%) 順
  -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32.0%), 공무원의 규제 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의 미흡(21.8%) 順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이유>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



## 2. 부문별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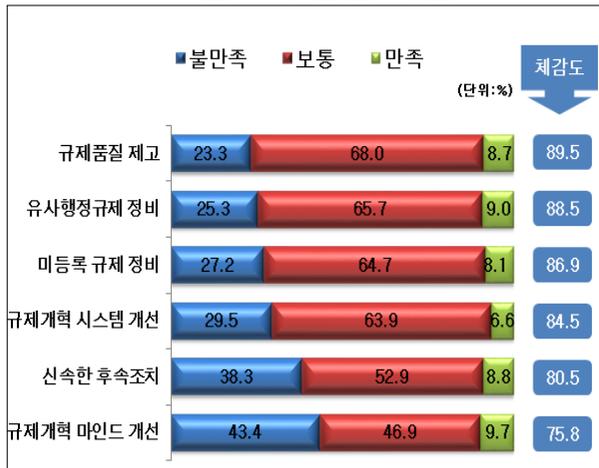
### · 부문별 체감도 조사부문

- 미등록 규제 정비, 규제심사 내실화로 규제품질제고, 법령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유사행정규제 정비,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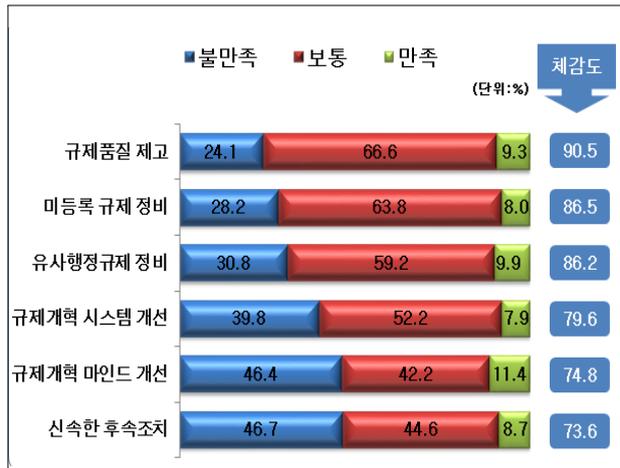
### □ 신속한 후속조치(73.6),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74.8)이 가장 미흡

- 부문별 체감도 결과는 규제품질 제고(90.5), 미등록 규제 정비(86.5), 유사 행정규제 정비(86.2),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79.6),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74.8), 신속한 후속조치(73.6) 순
- 규제품질제고 부문은 전년 대비 체감도가 1.0p 상승했으나,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과 신속한 후속조치부문은 체감도가 각각 4.9p, 6.9p 하락

< '15년도 부문별 체감도 >



< '16년도 부문별 체감도 >



< '16년도 부문별 응답 결과 >

(단위 : 응답 수, %)

부문별	규제품질제고	미등록 규제정비	유사행정규제 정비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규제개혁 마인드개선	신속한 후속조치
전체	473(100.0)	473(100.0)	493(100.0)	494(100.0)	500(100.0)	495(100.0)
매우 만족	9(1.9)	8(1.7)	9(1.8)	11(2.2)	12(2.4)	8(1.6)
약간 만족	35(7.4)	30(6.3)	40(8.1)	28(5.7)	45(9.0)	35(7.1)
보통	315(66.6)	302(63.8)	292(59.2)	258(52.2)	211(42.2)	221(44.6)
약간 불만족	85(18.0)	92(19.5)	110(22.3)	142(28.7)	143(28.6)	150(30.3)
매우 불만족	29(6.1)	41(8.7)	42(8.5)	55(11.1)	89(17.8)	81(16.4)
체감도	90.5	86.5	86.2	79.6	74.8	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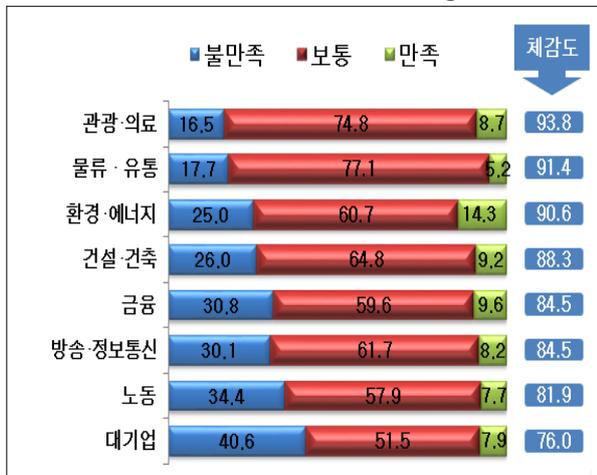
### 3. 분야별 체감도

#### 1)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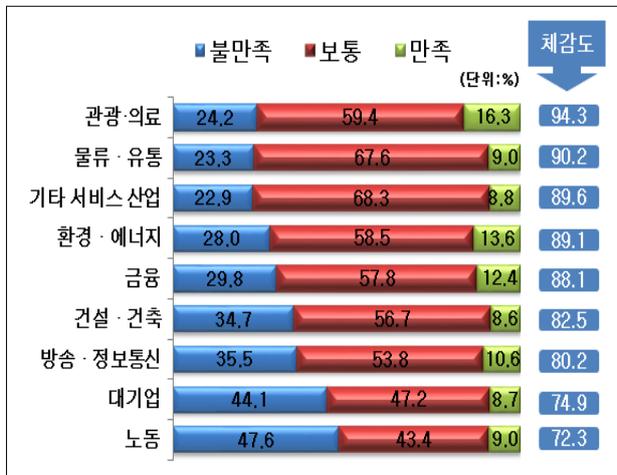
#### □ 노동 규제(72.3), 대기업 규제(75.0)가 가장 불만

- 분야별 체감도는 관광·의료(94.3), 물류·유통(90.2)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기업(75.0), 노동(72.3)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체감도가 상승한 분야는 금융(3.6p 상승), 관광·의료(0.5p 상승)이며, 체감도가 하락한 분야는 노동(9.6p 하락) 및 입지, 건설·건축(5.7p 하락)

<15년도 분야별 체감도 및 응답결과>



<16년도 분야별 체감도 및 응답결과>



< '16년도 분야별 응답 결과 >

(단위 : 응답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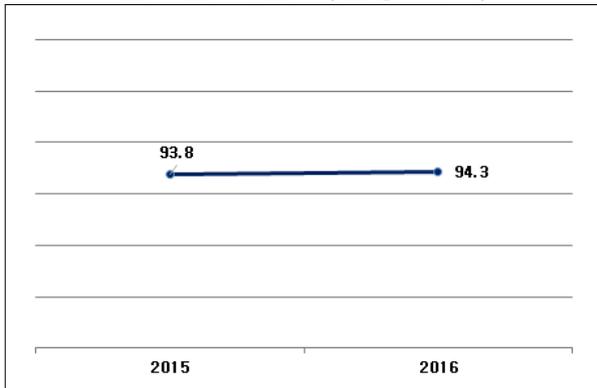
분야별	관광·의료	물류·유통	기타 서비스	환경·에너지	금융	건설·건축	방송·정보통신	대기업	노동
전체	458(100.0)	463(100.0)	480(100.0)	479(100.0)	483(100.0)	467(100.0)	470(100.0)	485(100.0)	500(100.0)
매우 만족	18(3.9)	9(1.9)	8(1.7)	11(2.3)	15(3.1)	11(2.4)	16(3.4)	12(2.5)	13(2.6)
약간 만족	57(12.4)	33(7.1)	34(7.1)	54(11.3)	45(9.3)	29(6.2)	34(7.2)	30(6.2)	32(6.4)
보통	272(59.4)	313(67.6)	328(68.3)	280(58.5)	279(57.8)	265(56.7)	253(53.8)	229(47.2)	217(43.4)
약간 불만족	77(16.8)	74(16.0)	70(14.6)	88(18.4)	98(20.3)	110(23.6)	82(17.4)	131(27.0)	141(28.2)
매우 불만족	34(7.4)	34(7.3)	40(8.3)	46(9.6)	46(9.5)	52(11.1)	85(18.1)	83(17.1)	97(19.4)
체감도	94.3	90.2	89.6	89.1	88.1	82.6	80.2	75.0	72.3

## 2) 관광·의료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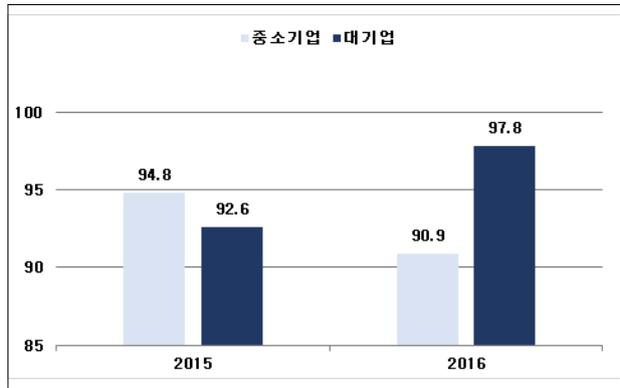
### □ 관광·의료 분야 체감도는 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체감도(94.3)를 기록

- 관광·의료 분야의 체감도는 94.3로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은 체감도를 기록  
- 체감도 추이 : 93.8('15)→94.3('16)
- '15년도 조사 시 중소기업의 체감도(94.8)가 대기업(92.6)보다 높았으나, '16년도에는 대기업의 체감도(97.8)가 중소기업의 체감도(90.9)보다 높아짐

<연도별 체감도(관광·의료)>



<기업 규모별 체감도(관광·의료)>



- 업종별로는 관광 의료분야와 관련이 큰 일반 서비스업의 체감도가 92.9를 기록하여 전체평균인 94.3보다 1.4p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관광·의료 분야)>

(단위 : %,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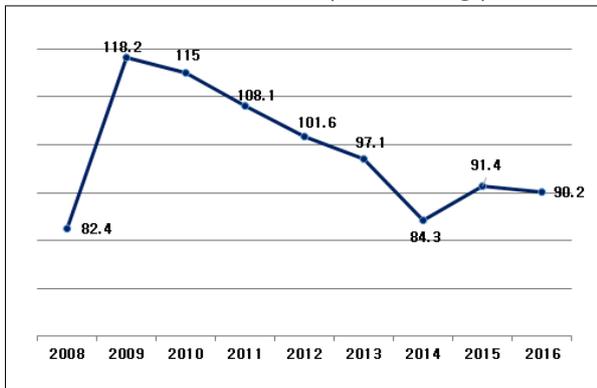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458)		7.4	16.8	59.4	12.4	3.9	94.3
기업 규모	대기업(226)	5.3	13.7	65.5	11.1	4.4	97.8
	중소기업(232)	9.5	19.8	53.4	13.8	3.4	90.9
업종	제조(257)	5.4	17.5	61.9	11.3	3.9	95.4
	건설(59)	8.5	18.6	61.0	10.2	1.7	89.0
	유통/운송(54)	13.0	13.0	53.7	13.0	7.4	94.4
	IT(3)	0.0	0.0	100.0	0.0	0.0	100.0
	일반서비스(63)	11.1	19.0	46.0	20.6	3.2	92.9
	금융권(9)	0.0	0.0	88.9	11.1	0.0	105.6
	섬유·화학/에너지(10)	10.0	10.0	60.0	10.0	10.0	100.0
	철강/금속(3)	0.0	33.3	66.7	0.0	0.0	83.4

### 3) 물류·유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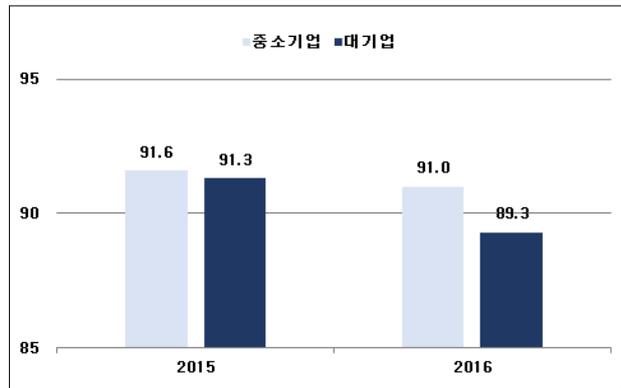
#### □ 물류·유통 분야 체감도는 '15년 대비 소폭 하락한 90.2

- 물류·유통 분야 체감도는 1.2p 하락하여 '15년도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체감도 추이 : 82.4('08)→118.2('09)→115.0('10)→108.1('11)→101.6('12)→97.1('13)→84.3('14)→91.4('15)→90.2('16)
- 규모별로는 대기업(89.3)과 중소기업(91.0) 간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업종별로는 유통·운송업(87.6)의 체감도가 전체 평균(90.2)보다 2.6p 낮은 것으로 조사됨

<연도별 체감도(물류·유통)>



<기업 규모별 체감도(물류·유통)>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물류·유통 분야)>

(단위 : %,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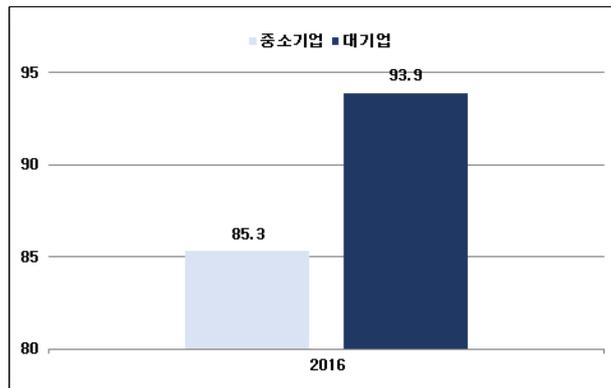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463)		7.3	16.0	67.6	7.1	1.9	90.2
기업 규모	대기업(229)	7.4	16.6	68.1	5.7	2.2	89.3
	중소기업(234)	7.3	15.4	67.1	8.5	1.7	91.0
업종	제조(261)	5.7	18.4	68.2	6.1	1.5	89.7
	건설(57)	7.0	14.0	73.7	5.3	0.0	88.7
	유통/운송(60)	13.3	20.0	50.0	11.7	5.0	87.6
	IT(4)	0.0	0.0	100.0	0.0	0.0	100.0
	일반서비스(60)	8.3	6.7	71.7	11.7	1.7	95.9
	금융권(8)	12.5	12.5	75.0	0.0	0.0	81.3
	섬유·화학에너지(10)	10.0	10.0	70.0	0.0	10.0	95.0
	철강/금속(3)	0.0	0.0	100.0	0.0	0.0	100.0

#### 4) 기타서비스 분야

##### □ '16년 조사에서 처음 추가된 기타서비스 분야 체감도는 89.6

- 기타서비스 분야 체감도는 89.6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93.9)보다 중소기업의 체감도(85.3)가 8.6p만큼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체감도 추이 : 89.6('16)

<기업 규모별 체감도(기타서비스)>



- 업종별로는 섬유·화학/에너지(109.1)와 IT(100.0)업종의 체감도가 100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서비스(85.2)업종의 체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 (기타서비스 분야)>

(단위 : %,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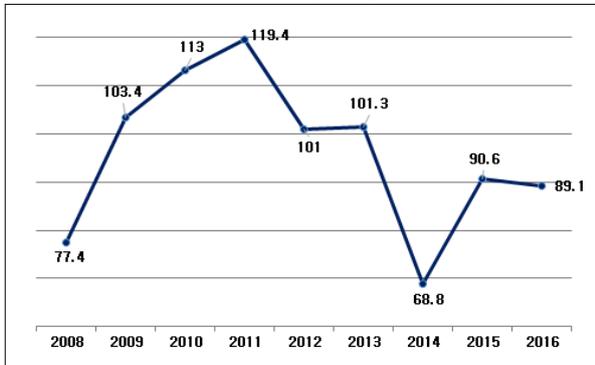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480)		8.3	14.6	68.3	7.1	1.7	89.6
기업 규모	대기업(239)	5.9	12.6	71.5	7.9	2.1	93.9
	중소기업(241)	10.8	16.6	65.1	6.2	1.2	85.3
업종	제조(268)	7.8	16.0	67.5	7.5	1.1	89.1
	건설(59)	8.5	5.1	78.0	6.8	1.7	94.1
	유통/운송(60)	10.0	16.7	65.0	5.0	3.3	87.5
	IT(4)	0.0	0.0	100.0	0.0	0.0	100.0
	일반서비스(64)	10.9	21.9	54.7	10.9	1.6	85.2
	금융권(11)	9.1	0.0	90.9	0.0	0.0	90.9
	섬유·화학/에너지(11)	0.0	0.0	90.9	0.0	9.1	109.1
	철강/금속(3)	0.0	0.0	100.0	0.0	0.0	100.0

## 5) 환경·에너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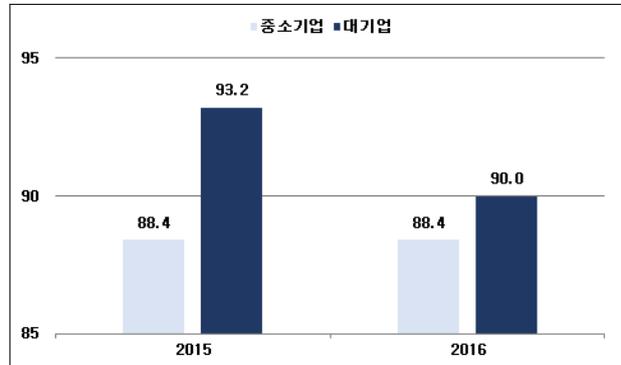
### □ 환경·에너지 분야 체감도는 89.1로 전년 대비 1.5p 하락

- '11년 이후 하락하던 체감도는 '15년 일시 반등 후 소폭 하락함
  - 체감도 추이 : 77.4('08)→103.4('09)→113.0('10)→119.4('11)→101.0('12)→101.3('13)→68.8('14)→90.6('15)→89.1('16)
  - \* '14년 이전에는 환경·안전 분야, '14년에는 환경 분야, '15년 이후에는 환경·에너지 분야로 조사
-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15년도 결과와 동일했으나 대기업 체감도는 '15년도 대비 3.2p 하락하여 기업 규모별 체감도 차이가 감소

<연도별 체감도(환경·에너지)>



<기업 규모별 체감도(환경·에너지)>



- 업종별로는 섬유·화학/에너지(105.6), IT(100.0)의 체감도가 100 이상이며, 유통/운송(85.3), 철강/금속(83.4)업종의 체감도가 낮게 나타남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 (환경·에너지 분야)>

(단위 : %,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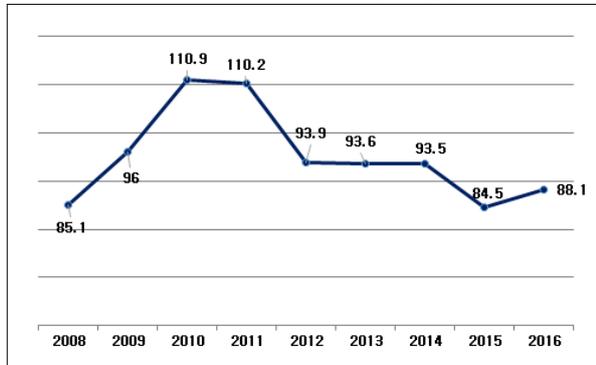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479)		9.6	18.4	58.5	11.3	2.3	89.1
기업 규모	대기업(238)	9.2	18.9	57.6	11.3	2.9	90.0
	중소기업(241)	10.0	17.8	59.3	11.2	1.7	88.4
업종	제조(271)	9.2	20.3	55.7	12.5	2.2	89.1
	건설(61)	13.1	13.1	63.9	8.2	1.6	86.1
	유통/운송(58)	13.8	19.0	53.4	10.3	3.4	85.3
	IT(4)	0.0	0.0	100.0	0.0	0.0	100.0
	일반서비스(63)	7.9	15.9	60.3	14.3	1.6	92.9
	금융권(10)	0.0	20.0	80.0	0.0	0.0	90.0
	섬유·화학/에너지(9)	0.0	11.1	77.8	0.0	11.1	105.6
	철강/금속(3)	0.0	33.3	66.7	0.0	0.0	83.4

## 6) 금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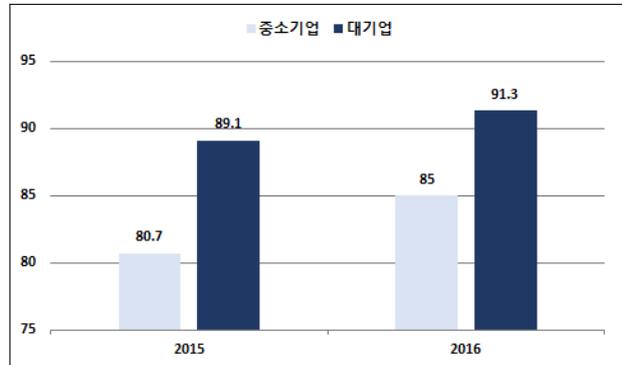
### □ 금융 분야 체감도는 88.1을 기록하여 6년 만에 상승세로 반전

- 금융 분야 체감도는 '11년 이후로 5년 연속 하락했으나 '16년 반등에 성공  
 - 체감도 추이 : 85.1('08)→96.0('09)→110.9('10)→110.2('11)→93.9('12)→93.6('13)→93.5('14)→84.5('15)→88.1('16)  
 \* '15년 이후 금융 분야로 조사, 이외에는 금융·자금조달 분야로 조사
- 전년과 비교하여 중소기업(80.7)과 대기업의 체감도(89.1)가 모두 상승했으며, 중소기업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

<연도별 체감도(금융)>



<기업 규모별 체감도(금융)>



- 업종별로 섬유·화학/에너지(113.7), 유통/운송(100.0), 철강/금속(100.0)의 체감도는 100 이상이었으나, 금융권의 체감도는 62.5로 업종 간 큰 차이를 보임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 (금융 분야)>

(단위 : %,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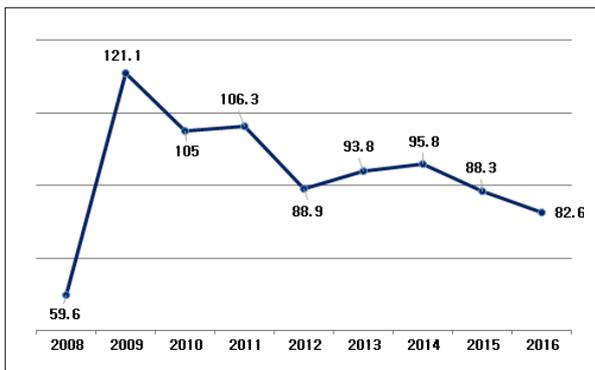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483)		9.5	20.3	57.8	9.3	3.1	88.1
기업 규모	대기업(236)	6.8	21.6	56.8	11.9	3.0	91.3
	중소기업(247)	12.1	19.0	58.7	6.9	3.2	85.0
업종	제조(276)	9.4	22.5	57.6	8.0	2.5	85.9
	건설(60)	15.0	20.0	53.3	10.0	1.7	81.7
	유통/운송(56)	8.9	14.3	57.1	12.5	7.1	97.3
	IT(4)	0.0	0.0	100.0	0.0	0.0	100.0
	일반서비스(61)	6.6	16.4	60.7	13.1	3.3	95.1
	금융권(12)	16.7	41.7	41.7	0.0	0.0	62.5
	섬유·화학/에너지(11)	0.0	9.1	63.6	18.2	9.1	113.7
	철강/금속(3)	0.0	0.0	100.0	0.0	0.0	100.0

## 7) 입지, 건설·건축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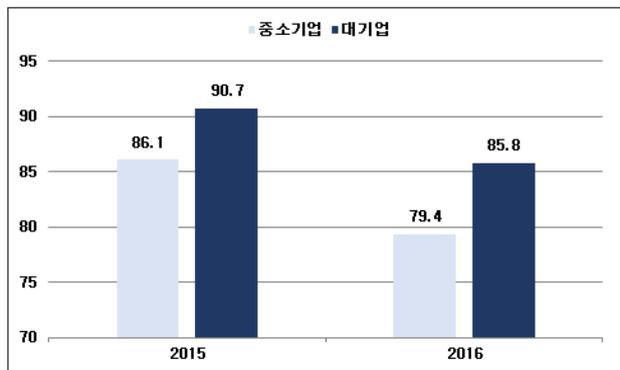
### □ 입지, 건설·건축 분야 체감도는 82.6

- 입지, 건설·건축 분야의 체감도는 82.6으로 전년에 비해 5.7p 하락
  - 체감도 추이 : 59.6('08)→121.1('09)→105.0('10)→106.3('11)→88.9('12)→93.8('13)→95.8('14)→88.3('15)→82.6('16)
  - \* '15년 이후 기업 입지 및 건설·건축 분야로 조사, 이외의 기간은 건설·건축 분야로 조사
- 규모별로는 대기업(85.8)과 중소기업의 체감도(79.4)가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를 유지

<연도별 체감도(입지, 건설·건축)>



<기업 규모별 체감도(입지, 건설·건축)>



- 업종별로는 금융권(70.0)의 체감도가 가장 낮았으나, 해당분야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업의 불만족 비율(4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입지, 건설·건축 분야)>

(단위 : %,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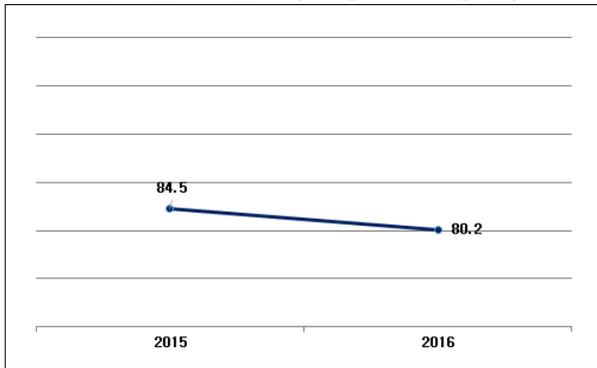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467)		11.1	23.6	56.7	6.2	2.4	82.6
기업 규모	대기업(232)	11.2	19.8	58.2	7.8	3.0	85.8
	중소기업(235)	11.1	27.2	55.3	4.7	1.7	79.4
업종	제조(262)	11.5	21.8	59.2	5.3	2.3	82.6
	건설(63)	12.7	33.3	47.6	6.3	0.0	73.8
	유통/운송(54)	13.0	27.8	46.3	9.3	3.7	81.5
	IT(4)	0.0	0.0	100.0	0.0	0.0	100.0
	일반서비스(60)	8.3	18.3	60.0	10.0	3.3	90.9
	금융권(10)	20.0	20.0	60.0	0.0	0.0	70.0
	섬유·화학·에너지(11)	0.0	27.3	63.6	0.0	9.1	95.5
	철강/금속(3)	0.0	33.3	66.7	0.0	0.0	83.4

## 8) 방송·정보통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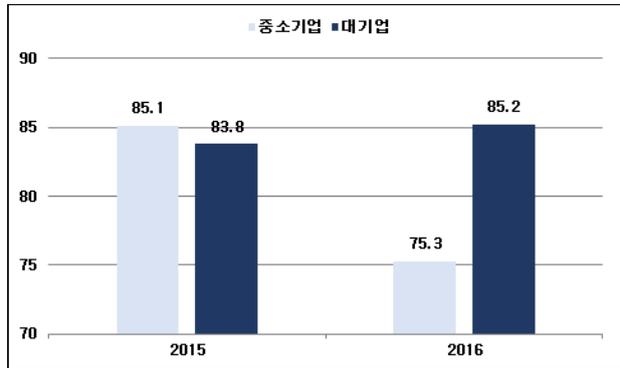
### □ 방송·정보통신 분야 체감도는 80.2

- 방송·정보통신 분야 체감도는 전년에 비해 4.3p 하락  
- 체감도 추이 : 84.5('15)→80.2('16)
- '15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체감도(85.1)가 대기업(83.8)보다 소폭 높았으나 '16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체감도(75.3)가 대폭 하락하여 대기업 체감도(85.2)보다 낮게 나타남

<연도별 체감도(방송·정보통신)>



<기업 규모별 체감도(방송·정보통신)>



- 업종별로는 IT(100.0), 섬유·화학/에너지(100.0), 철강/금속(100.0)의 체감도가 100 이상이었고, 유통/운송(75.0), 건설(69.7)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방송·정보통신 분야)>

(단위 : %,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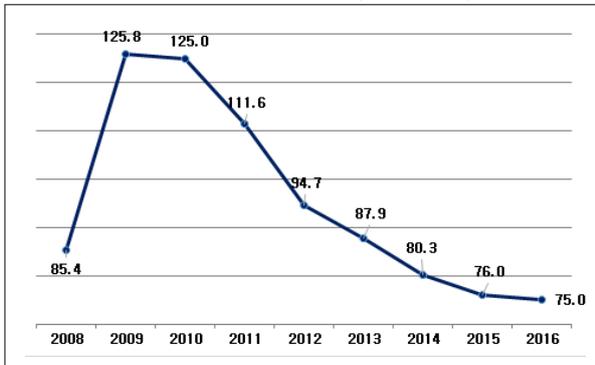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470)		18.1	17.4	53.8	7.2	3.4	80.2
기업 규모	대기업(233)	14.6	17.2	55.4	9.0	3.9	85.2
	중소기업(237)	21.5	17.7	52.3	5.5	3.0	75.3
업종	제조(264)	15.5	19.7	54.2	7.2	3.4	81.7
	건설(61)	24.6	18.0	50.8	6.6	0.0	69.7
	유통/운송(56)	25.0	16.1	50.0	1.8	7.1	75.0
	IT(3)	0.0	0.0	100.0	0.0	0.0	100.0
	일반서비스(63)	22.2	9.5	50.8	14.3	3.2	83.4
	금융권(11)	0.0	27.3	72.7	0.0	0.0	86.4
	섬유·화학/에너지(9)	11.1	11.1	55.6	11.1	11.1	100.0
	철강/금속(3)	0.0	0.0	100.0	0.0	0.0	100.0

## 9) 대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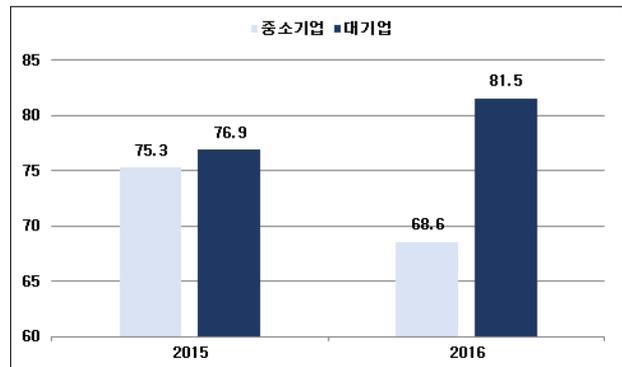
### □ 대기업 분야의 체감도는 '09년 이후 7년 연속 하락하여 75.0을 기록

- 대기업 분야 체감도는 75.0으로 조사기간 중 최저 기록
  - 체감도 추이 : 85.4('08)→125.8('09)→125.0('10)→111.6('11)→94.7('12)→87.9('13)→80.3('14)→76.0('15)→75.0('16)
  - \* `15년 이후 대기업 분야로 조사, 이외의 기간은 대기업·공정거래 분야로 조사
- 전년 대비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6.7p 하락한 반면, 대기업의 체감도는 4.6p 상승하여 기업 규모 간 체감도 차이가 확대됨

<연도별 체감도(대기업)>



<기업 규모별 체감도(대기업)>



- 업종별로는 IT(87.5), 유통/운송(80.6), 일반서비스(78.7)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건설(71.9), 금융권(70.9), 철강/금속(66.7)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 (대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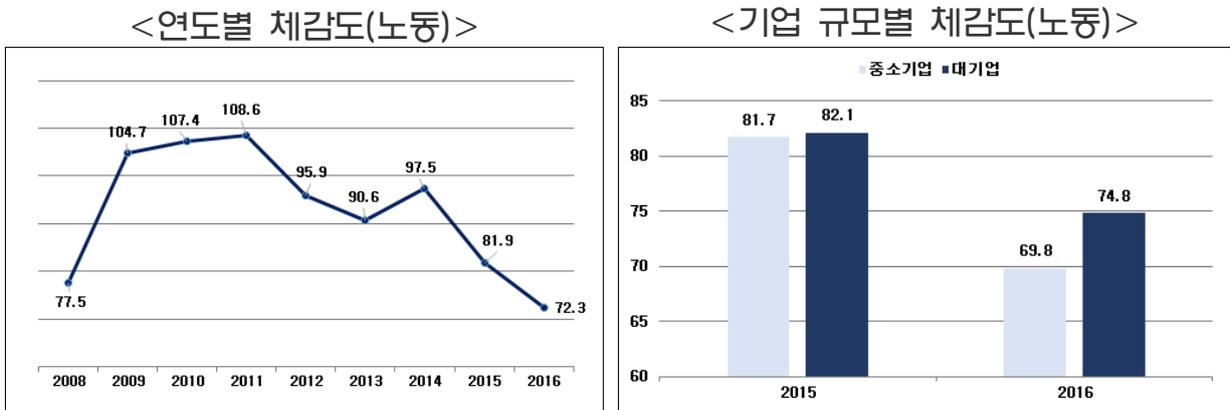
(단위 : %, 체감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485)		17.1	27.0	47.2	6.2	2.5	75.0
기업 규모	대기업(240)	12.5	26.3	50.8	6.7	3.8	81.5
	중소기업(245)	21.6	27.8	43.7	5.7	1.2	68.6
업종	제조(271)	16.6	29.5	46.1	5.9	1.8	73.4
	건설(64)	20.3	21.9	53.1	3.1	1.6	71.9
	유통/운송(59)	18.6	22.0	44.1	10.2	5.1	80.6
	IT(4)	25.0	0.0	50.0	25.0	0.0	87.5
	일반서비스(61)	14.8	26.2	49.2	6.6	3.3	78.7
	금융권(12)	8.3	41.7	50.0	0.0	0.0	70.9
	섬유·화학에너지(11)	27.3	9.1	45.5	9.1	9.1	81.8
	철강/금속(3)	0.0	66.7	33.3	0.0	0.0	66.7

## 10) 노동 분야

### □ 노동 분야의 규제개혁 체감도(72.3)는 전년 대비 9.6p 하락

- 노동 분야 규제개혁 체감도(72.3)는 전년 대비 9.6p 하락하여 조사기간 중 최저를 기록했으며, '16년 조사 분야 중 체감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나타남
  - 체감도 추이 : 77.5('08)→104.7('09)→107.4('10)→108.6('11)→95.9('12)→90.6('13)→97.5('14)→81.9('15)→72.3('16)
  - \* '15년 이후 노동 분야로 조사하였으며, 이외의 기간은 인사·노무 분야로 조사
- '16년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11.9p 하락한 69.8, 대기업의 체감도는 7.3p 하락한 74.8로 중소기업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IT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체감도가 60~70 수준으로 조사되어 업종을 막론하고 기업들이 노동규제에 대해 크게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철강·금속, 건설, 유통/운송 업종은 50%를 넘는 불만족 비율을 나타냄

###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 (노동 분야)>

(단위 : %, 체감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500)		19.4	28.2	43.4	6.4	2.6	72.3
기업 규모	대기업(248)	17.3	29.4	43.1	6.5	3.6	74.8
	중소기업(252)	21.4	27.0	43.7	6.3	1.6	69.8
업종	제조(281)	16.7	29.2	44.8	6.0	3.2	74.9
	건설(62)	27.4	29.0	35.5	8.1	0.0	62.2
	유통/운송(63)	25.4	25.4	38.1	7.9	3.2	69.1
	IT(4)	0.0	0.0	100.0	0.0	0.0	100.0
	일반서비스(63)	17.5	28.6	44.4	7.9	1.6	73.8
	금융권(13)	23.1	23.1	53.8	0.0	0.0	65.4
	섬유·화학에너지(11)	27.3	18.2	45.5	0.0	9.1	72.7
	철강/금속(3)	0.0	66.7	33.3	0.0	0.0	66.7

### Ⅲ 규제로 인한 투자 및 신산업 진출 애로여부

#### 1. 투자계획 무산 및 지체 경험

□ 지난 1년간 각종 규제로 투자계획이 무산/지체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4%로 '15년 조사결과(8.9%)와 비교하여 0.5%p 증가

- 규모별로는 중소기업(9.8%)이 대기업(9.0%)에 비해, 업종별로는 일반서비스(15.6%), 금융권(15.4%)이 다른 업종에 비해 투자 무산·지체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투자계획 무산·지체 경험 여부>

(단위 : %)

분 류		있 음	없 음	모름/무응답
전 체 (510)		9.4	83.9	6.7
기업규모	대기업(255)	9.0	83.1	7.8
	중소기업(255)	9.8	84.7	5.5
업종	제조(284)	7.7	87.0	5.3
	건설(65)	10.8	80.0	9.2
	유통/운송(66)	10.6	86.4	3.0
	IT(4)	0.0	75.0	25.0
	일반서비스(64)	15.6	76.6	7.8
	금융권(13)	15.4	53.8	30.8
	섬유·화학/에너지(11)	0.0	90.9	9.1
	철강/금속(3)	0.0	100.0	0.0

#### 2. 신산업 진출 애로 경험

□ 규제로 인해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9%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4.1%)이 중소기업(11.8%)에 비해, 업종별로는 금융권(30.8%)과 일반 서비스업(14.1%)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됨

### <신산업 진출 애로 경험 여부>

(단위 : %)

분 류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전 체 (510)		12.9	79.6	7.5
기업규모	대기업(255)	14.1	76.1	9.8
	중소기업(255)	11.8	83.1	5.1
업종	제조(284)	12.3	81.3	6.3
	건설(65)	13.8	80.0	6.2
	유통/운송(66)	12.1	77.3	10.6
	IT(4)	0.0	75.0	25.0
	일반서비스(64)	14.1	79.7	6.3
	금융권(13)	30.8	38.5	30.8
	섬유·화학/에너지(11)	9.1	90.9	0.0
	철강/금속(3)	0.0	100.0	0.0

### 3. 신산업 진출 애로 이유

#### □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규제(31.8%)가 가장 큰 어려움

-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규제(31.8%),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 규제(30.3%) 順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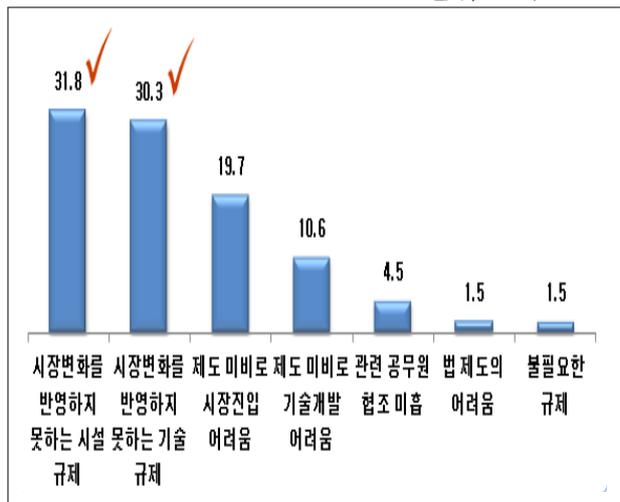
#### <신산업 진출 애로 경험>

(단위 : %, N=510)



#### <신산업 진출 애로 이유>

(단위 : %, N=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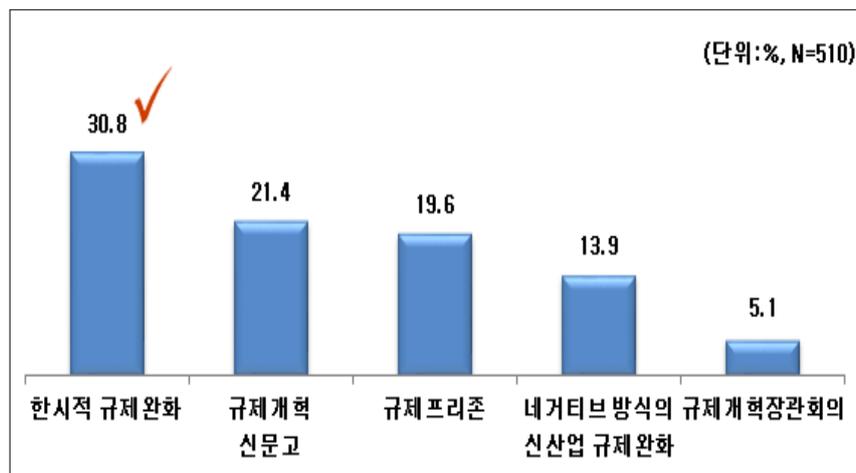
## IV 향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개선과제

### 1.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규제개혁 정책

□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규제개혁 정책은 한시적 규제완화(30.8%)

- 기업들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규제개혁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30.8%), 규제개혁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順으로 나타남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규제개혁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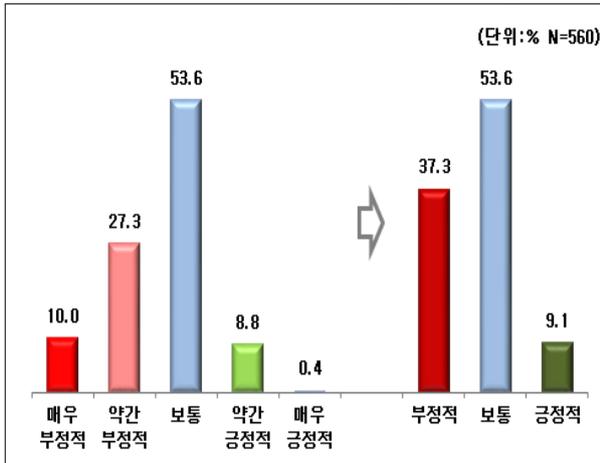


### 2. 현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성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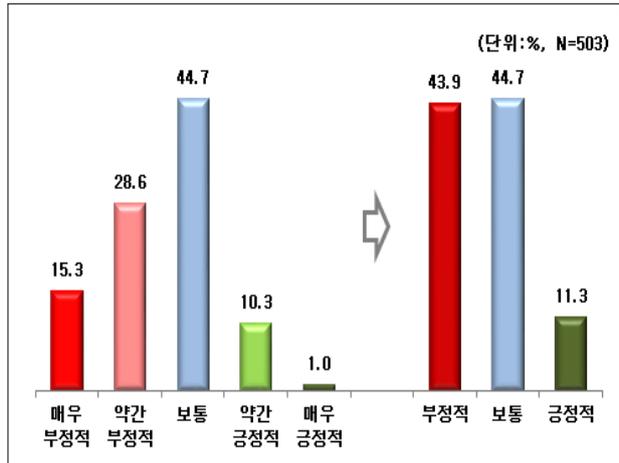
□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3.3%로 긍정적인 응답(11.2%)의 4배

-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 매우 긍정적(1.0%), 긍정적(10.2%), 보통(44.1%), 부정적(28.2%), 매우 부정적(15.1%) 順으로 응답
  - 규제개혁정책의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변화가 없어서(28.1%),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13.6%), 현실적이지가 않아서(7.2%) 順
  - 규제개혁정책의 성과 전망에 긍정적인 이유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서(40.4%),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되어서(5.3%),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서(5.3%) 順

< '15년도 규제개혁 성과 전망 >



< '16년도 규제개혁 성과 전망 >



- 업종별로는 일반서비스(50.0%), 건설(48.4%), 금융권(46.2%), 섬유·화학/에너지(45.5%) 순으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 전망(업종별) >

(단위 : 응답 수, %)

분 류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전 체 (503)		77(15.1)	144(28.2)	225(44.1)	52(10.2)	5(1.0)
업종	제조(281)	42(14.8)	78(27.5)	131(46.1)	28(9.9)	2(0.7)
	건설(62)	12(18.5)	18(27.7)	24(36.9)	8(12.3)	0(0.0)
	유통/운송(65)	12(18.2)	15(22.7)	34(51.5)	3(4.5)	1(1.5)
	IT(4)	0(0.0)	0(0.0)	4(100.0)	0(0.0)	0(0.0)
	일반서비스(64)	8(12.5)	24(37.5)	21(32.8)	10(15.6)	1(1.6)
	금융권(13)	2(15.4)	4(30.8)	6(46.2)	1(7.7)	0(0.0)
	섬유·화학/에너지(11)	1(9.1)	4(36.4)	3(27.3)	2(18.2)	1(9.1)
	철강·금속(3)	0(0.0)	1(33.3)	2(66.7)	0(0.0)	0(0.0)

### 3.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

·과제선정 방식

- 8개의 규제부문과 9개의 규제분야를 선정한 후 응답자에게 규제부문과 규제분야에서 각각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함

#### □ [부문별] 신속한 후속조치(41.6%), 신산업 규제 정비(32.5%) 順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부문별, 중복응답>

번호	규제 부문별	비율*(%)
1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	41.6
2	신산업 진출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	32.5
3	선제적 경기대응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28.6
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	24.3
5	정부 및 지자체의 미등록 규제 정비	17.8
6	규제총량제 등 효율적인 규제관리체계 구축	14.5
7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규제품질제고	13.5
8	유사행정규제 정비(행정지도·지침 등)	11.6

\* 1, 2순위 중복응답을 합한 비율로 합이 100% 초과

#### □ [분야별] 노동 규제(38.0%), 대기업 규제(28.2%), 환경·에너지 규제(25.3%) 順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분야별, 중복응답>

번호	규제 분야별	비율*(%)
1	노동 규제 분야 개선	38.0
2	대기업 규제 분야 개선	28.2
3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 규제 개선	25.3
4	금융 규제 분야 개선	24.5
5	입지 및 건설·건축 분야 규제 개선	21.8
6	관광·의료 분야 규제 개선	14.7
7	방송·통신 분야 규제 개선	10.6
8	물류·유통 분야 규제 개선	8.6
9	기타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	7.5

\* 1, 2순위 중복응답을 합한 비율로 합이 100% 초과

## <부 록>

###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표

#### I.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 평가

##### 1.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N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체감도
전 체	481	10.6	20.0	63.4	3.7	2.3	83.6
대기업	240	8.8	15.8	67.5	3.8	4.2	89.4
중소기업	241	12.4	24.1	59.3	3.7	0.4	77.8

##### 1-1.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N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미흡	공무원의 마인드불변	핵심규제 개선 미흡	규제시스템 법안통과지연	해당분야 규제 신설/ 강화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147	32.0	24.5	21.8	10.9	8.2	2.7
대기업	59	37.3	23.7	16.9	8.5	8.5	5.1
중소기업	88	28.4	25.0	25.0	12.5	8.0	1.1

##### 1-2.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N	공무원 마인드 개선	핵심규제 개선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해당분야 규제 완화/ 폐지	중복규제 개선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29	24.1	20.7	20.7	13.8	6.9	13.8
대기업	19	26.3	10.5	26.3	21.1	10.5	5.3
중소기업	10	20.0	40.0	10.0	0.0	0.0	30.0

##### 2.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1. 규제 부문별

(단위 : 체감도)

	N	미등록 규제 정비	규제품질 제고	신속한 후속조치	유사행정 규제 정비	규제개혁 시스템개선	규제개혁 마인드개선
전 체	510	86.5	90.5	73.6	86.2	79.6	74.8
대기업	255	92.1	94.1	78.7	88.4	83.7	75.6
중소기업	255	81.0	86.8	68.7	84.1	75.5	74.0

## 2-2. 규제 분야별

(단위 : 체감도)

	N	대기업	입지 건설·건축	환경· 에너지	관광· 의료	방송· 정보통신	금융	노동	물류/ 유통	기타 서비스
전 체	510	74.9	82.5	89.1	94.3	80.2	88.1	72.3	90.2	89.6
대기업	255	81.5	85.8	89.9	97.8	85.2	91.3	74.8	89.3	93.9
중소기업	255	68.6	79.4	88.4	90.9	75.3	85.0	69.8	91.0	85.3

3. 귀사는 지난 1년간 각종 규제로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위 : %)

	N	있음	없음
전 체	510	9.4	83.9
대기업	255	9.0	83.1
중소기업	255	9.8	84.7

## II. 규제로 인한 신산업 진출 관련 애로사항 의견조사

1. 귀사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N	있음	없음
전 체	510	12.9	79.6
대기업	255	14.1	76.1
중소기업	255	11.8	83.1

1-1.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N	시장변화 반영 못하는 시설규제	시장변화 반영 못하는 기술규제	제도미비로 시장진입 어려움	제도미비로 기술개발 어려움	공무원 협조 미흡	법제도의 어려움	불필요한 규제
전 체	66	31.8	30.3	19.7	10.6	4.5	1.5	1.5
대기업	36	27.8	22.2	30.6	13.9	2.8	2.8	0.0
중소기업	30	36.7	40.0	6.7	6.7	6.7	0.0	3.3

## III. 정부의 향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최우선 추진 과제

1.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위 : %)

	N	한시적 규제완화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프리존	신산업 규제완화	규제개혁 장관회의	모름·무응답
전 체	510	30.8	21.4	19.6	13.9	5.1	9.2
대기업	255	32.9	14.9	23.9	13.3	5.9	9.0
중소기업	255	28.6	27.8	15.3	14.5	4.3	9.4

## 2.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N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모름·무응답
전 체	510	15.1	28.2	44.1	10.2	1.0	1.4
대기업	255	10.2	27.1	46.3	12.5	1.6	2.4
중소기업	255	20.0	29.4	42.0	7.8	0.4	0.4

### 2-1.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N	변화가 없어서	정부의지 부족	현실적이지 않아서	효과보기 어려워서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기타/모름·무응답
전 체	221	28.1	12.2	7.2	5.4	4.1	44.8

### 2-2.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N	적극적인 노력	공무원 태도변화	후속조치 진행	규제프리존 사업진행	신산업 규제해소	기타/모름·무응답
전 체	57	40.4	5.3	5.3	5.3	3.5	40.4

## 3.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적 추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1. 규제 부문

(단위 : %, 1순위 + 2순위 합 100% 초과)

	N	신속한 후속조치	신산업 규제정비	한시적 규제완화	공무원 마인드	미등록 규제	규제관리 체계구축	규제품질 제고	유사 행정규제	모름·무응답
전 체	510	41.6	32.5	28.6	24.3	17.8	14.5	13.5	11.6	4.1
대기업	255	41.2	35.7	31.4	20.8	20.0	14.1	13.3	11.0	3.9
중소기업	255	42.0	29.4	25.9	27.8	15.7	14.9	13.7	12.2	4.3

### 3-2. 규제 분야

(단위 : %, 1순위 + 2순위 합 100% 초과)

	N	노동	대기업	금융	환경 에너지	입지, 건설·건축	관광/의료	방송/통신	물류/유통	기타 서비스	모름·무응답
전 체	510	38.0	28.2	24.5	25.3	21.8	14.7	10.6	8.6	7.5	3.1
대기업	255	35.3	30.6	26.3	28.2	24.7	15.3	11.0	10.2	4.7	4.3
중소기업	255	40.8	25.9	22.7	22.4	18.8	14.1	10.2	7.1	10.2	2.0

---

## <참고문헌>

- 2015년 규제개혁백서, 2016,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특특, 2013,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2016년 신산업 규제개선 건의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년 한시적 규제완화·유예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규제개혁 종합건의,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2015,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3,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2,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1,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0,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09,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08, 전국경제인연합회